

「과기정통부-통신3사 CEO 간담회」 개최

- ▲ 3사 방문하며, **현장소통 강화** 시동(금번은 SKT)
- ▲ AI시대, 통신사 역할 확대 강조(‘AI 인프라·플랫폼 기업’)
- ▲ AI-Native 네트워크 고도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합의
(8월중, 투자·규제개선 일괄검토)
- ▲ 민생안정 위해, 3사별로 ‘8~9월 **고객 혜택 강화**’ 발표 합의
(7월중, 포함내용(예시) : 생활밀접 분야 멤버십·제휴할인 확대,
청년·취약계층 등 대상별 혜택 강화, 통신생태계 상생 등)
- ▲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합리적 소비 지원 위한 **알뜰폰 대책, 최적요금 고지제도 등에 대한 협력**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3일(목) 오전 SKT 사옥에서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통신사가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AI 인프라부터 일상생활·산업현장을 촘촘히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지난 간담회 성과 점검

이어서 정부와 통신3사는 지난 간담회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QoS) 확대, 어르신 이용자에게 음성·문자 추가 제공을 포함한 **요금제 개편**과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통신3사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LTE→5G)를 추진하는 등 주요 논의사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AI 기반(AI-Native)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논의

SKT가 6G, 지능형 기지국(AI-RAN) 등 미래 네트워크 진화와 AI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사의 비전을 발표한데 이어,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 및 **육양국 다변화**, **저궤도위성망 경쟁력 확보** 방안을, LGU+는 연내 5G 단독모드(SA) 구축과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구현 등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며, 통신3사 모두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향한 투자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며, 통신3사와 네트워크 투자 및 통신규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8월부터 구성·운영하기로 했다.(연내 결과 발표 목표)

□ 민생 안정 관련 통신분야 지원 방안 논의

아울러 대외여건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분야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통신3사는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인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밀접 분야**의 멤버십이나 제휴할인 확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 요금제 추가혜택 제공** 등 다양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7월에 발표하는 등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휴대폰 유통업체, 알뜰폰업체, 정보통신공사업체**와도 **상생 발전하는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지양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도매대가 지속 개선**, **일감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AX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범국가적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통신3사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와 통신업계가 협력해 **AI-Native 네트워크 고도화**와 **국민 누구나 통신·인터넷·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함으로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홍 사 찬 (044-202-6620)
		담당자	사무관 이 호 웅 (044-202-6621)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경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 규 철 (044-202-6640)
		담당자	사무관 김 휘 제 (044-202-6645) 사무관 박 재 성 (044-202-6644)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 준 모 (044-202-6650)
		담당자	서기관 구 희 선 (044-202-6655)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 영 길 (044-202-6420)
		담당자	사무관 이 의 미 (044-202-6425)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혁신네트워크팀	책임자	팀 장 박 보 경 (044-202-6415)
		담당자	사무관 허 관 (044-202-6428)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디지털기반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 성 훈 (044-202-6430)
		담당자	사무관 김 수 연 (044-202-6435)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사이버침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백 대 현 (044-202-6460)
		담당자	사무관 장 민 영 (044-202-6465)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주파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 창 목 (044-202-4940)
		담당자	사무관 한 지 용 (044-202-4947)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 기 철 (044-202-6590)
		담당자	사무관 용 인 호 (044-202-6593)

